

“도시 개발, 공공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하다”

윤현석 광주일보 정치부 부국장 ‘정의로운 도시를 꿈꾸며’ 발간 균형발전 저해하는 개발, 특정세력 독점된 공간 가치 지양해야

“공공기관의 계획과 개발은 현재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하게 수립,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 빛어지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개발 비리, 수도권 과밀, 지방 소멸 등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실마리가 될 수 있어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공간은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의식주를 비롯해 쉬고 즐기는 행위는 모두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의 삶은 달라진다.

윤현석 광주일보 정치부 부국장은 도시 및 지역개발과 관련해 관심이 많다. 전남대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기자로 근무하는 동안 틈틈이 도시 개발사를 비롯해 도시재생, 지방자치, 균형발전에 대한 기획·심층기사를 쓰고 연구를 병행했다.

이번에 윤 기자가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 등을 담은 ‘정의로운 도시를 꿈꾸며 (한울)’를 펴냈다.

‘정의로운 도시’라는 표현은 광주의 정체성이나 역사, 나아가 방향과도 부합된다. 부제를 ‘광주를 중심으로 본 한국의 도시 개발사’라고 정한 것은 지역을 근거로 오늘날 도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다면적이며 다층적 시각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을 비롯해 해외 사례 등도 제시하고 있어 국토 균형 발전의 제 사례로도 참조할 만하다.

윤 기자는 “공간은 규모를 떠나 각각의 특징을 지니는데 특히 주거공간에서부터 그 주변, 도시나



윤현석 기자

지역 전체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선 일정한 원칙을 갖고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 거주 만족도를 점차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력이 상실되고 가치가 사라지기 시작한 공간에 대해서는 정비와 개선을 통해 다시 그 공간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모든 공간은 공정한 원칙에 따라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고 충분히 반영해 조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자의 문제의식은 개발이 막대한 이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도시가 고층 아파트로 채워지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출발했다. 이 같은 상황은 공간을 제어하지 못하는 도시계획과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인·허가, 투기를 조장하는 주택 거래 시스템 등과 일정 부분 맞물려 있다.

“우리나라 압축 경제 성장은 국토 전반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압축의 정도가 강했고 그 성과 역시 컸지만, 불균형의 정도 역시 심각하게 드러났죠.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 만에



선진국 수준에 오르는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 체제를 지속하려는 힘은 더욱 강해졌어요. 기득권을 가진 지역과 세력은 이를 더 견고하게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한 측면이 있었죠.”

사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수도권으로 집중화되고 있다. 좋은 대학, 일자리, 병원, 복지 등 시설과 인구가 몰리면서 지방의 여건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윤 기자는 이에 대해 수도권의 확장 및 강화를 억제하고 일부 기능을 해체해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양한 분야의 정부부처와 공기업, 대학, 기업을 수도권에서 가장 먼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권장하고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대기업에 법인세와 상속세 감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대학에는 이전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며 “공장과 기업을 의무적으로 인구 소멸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것도 지역을 재생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책에서는 주택 공급 시스템 전면 개편 부분도 다루고 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공공임대 질을 높여 민간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공임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공공공간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투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윤 기자는 “정부의 신도시 개발 및 택지 공급, 정부와 지자체의 인·허가를 통해 발생하는 공기업과 민간 개발·건설업체의 이익을 산정하고 이익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이를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업체의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를 대폭 늘리고 개발에 따른 이익이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계획, 도시 개발, 국토계획, 지역 개발, 국토 개발과 관련된 시스템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특정 지역에 재정을 집중하는 국토계획과 개발, 민간업체의 개발 이익에 충실한 도시계획과 개발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기자는 ‘일제강점기 지방단체 운영구조 분석’ 등 다수 논문과 ‘도시경제와 산업살리기’(공역), ‘도시 에메타와 생태’(공역) 등을 번역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피아니스트 허효정이 인문학 리사이틀에서 토크하는 모습. (허효정 씨 제공)

피아니스트 허효정 인문학 리사이틀 16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칸트의 ‘숭고’ 개념이 담겨 있는 작품들을 연주하고 음악이론까지 알려주는 인문학 리사이틀.

피아니스트이자 음악 연구자인 허효정(조선대 음악학과) 교수가 ‘클래식 음악은 어떻게 숭고해졌는가? 그 이면의 이야기’를 오는 16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연다.

행사는 18-19세기 사료를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클래식 음악이 형성된 경위를 철학적으로 훑어보는 형식이다.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 등장하는 숭고 개념을 음악 속에서 칸트 이론이 어떻게 적용됐고 변형되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토크와 음악 연주를 교차시키며 진행하며 ‘칸트의 판단력 비판: 아름다움VS숭고함’, ‘숭고의 초감각성과 형이상학적인 음악적 아이디어’, ‘숭고의 도덕성과 음악담론의 반세속주의’ 등을 이야기할 계획이다.

리스트 ‘사랑의 꿈 3번’, 바흐 ‘프렐류드와 푸가

BWV 881’,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8번’을 이야기한다. 프랑크 작 ‘프렐류드, 코랄과 푸가’도 연주한 뒤 관련된 비화를 들려준다.

서울대 음대 기악과, 인문대 미학과를 졸업한 허효정은 동 대학원 서양음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웨스트민스터대에서 피아노와 종교음악 석사, 인디애나 블루밍턴대에서 연주자 디플로마, 위스콘신-메디슨대에서 합창지휘 석사 및 피아노 박사학위를 받았다. 뉴욕 카네기홀에서 데뷔했으며 오스트리아 비엔나, 이탈리아 볼로냐,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무대에서 연주해 왔다. 서울대 서양음악연구소 객원연구원, 한예중, 서울교대, 조선대, 호신대 등에서 강의했으며 현재 조선대학교 조교수.

허효정은 “음악작품에 담겨있는 철학 정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수년 간 연구했던 지식을 인문학 리사이틀 형식에 담아냈으니 관객들과 함께 의문을 해소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공연은 12월 21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금호아트홀 홈페이지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오로지 형식만으로 영화 만들기’

‘2023 광주청소년 영화학교’ 수강생 16일까지 모집

일상을 영상물로 기록하는 ‘비디오 다이어리’를 제작하고 영화에 대한 원초적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수업이 마련된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주최하고 광주영화영상인연대에서 주관하는 ‘2023 광주청소년 영화학교’가 수강생을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오로지 형식만으로 영화 만들기’라는 부제를 지닌 이번 프로그램은 차세대 영화 인재가 되길 원하는 중·고교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기 영화사의 형식적 도전들을 실습 위주로 강의한다는 계획이다. 강의는 광주독립영화관GIFT 교육실(동구 제봉로 96, 6층)에서 ‘포토로망: 사진으로 만드는 짧은 영화’, ‘셀프 에세이: 미니 다큐멘터리 제작’, ‘영화의 시작: 루미에르 필름’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다. 이어 비디오 다이어리를 제작하는 시간을 총 2회 갖고 직접 만든 작품을 감상하는 상영회로 마무리한다.

영화 ‘엄마가 60살이 되기 전에’, ‘할머니와 감나무’, ‘울리브’의 각본·연출을 맡은 김소영과 ‘맞을 놓다’ 각본 촬영, ‘장동이 어디입니까?’ 스크립터 등을 맡은 김시라가 강사진으로 나온다.

광주영화영상인연대 조명선 에듀케이터는 “정



2023 광주청소년 영화학교 포스터

(광주독립영화관 제공)

소년들이 직접 영화를 제작해보고 영화사의 형식적 도전들을 경험해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미래의 영화 인재를 꿈꾸는 지역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전 과정 무료. 상영회를 포함한 6회차 강의에 모두 필수참석(한 번이라도 결석하면 탈락)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바우만주택단지. 에너지자립 및 물순환의 삶을 살아야 입주할 수 있다.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 수상,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꿈처럼 스며오는 지극한 사랑의 기억’

올해의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에 선정된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는 ‘꿈처럼 스며오는 지극한 사랑의 기억’을 다룬 작품이다.

작가는 이 소설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바란다”(‘작가의 말’)고 했다.

9일(현지시간) 메디치 문학상 심사위원단은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메디치 외국문학상에 선정했다. 우리나라 작가 작품이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수상한 건 처음이며, 메디치상은 프랑스 4대 문학상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수상작 ‘작별하지

않는다’는 부커상 수상 이후 5년 만에 펴낸 장편 소설이다. 기억과 사랑, 상흔 등을 작가 특유의 시적인 문체와 선연한 이미지로 형상화했다. 당초 2019년 겨울부터 2020년 봄까지 기간 ‘문학동네’에 전반기부를 연재하며 호응을 받았다.

작품은 소설가인 주인공 경하의 꿈으로부터 전개된다. 눈발이 흠날리는 벌판에 수많은 통나무들이 서 있다. 어느 순간 불이 차오르고, 경하는 무덤들이 바다에 쓸려가기 전에 뼈들을 옮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잠에서 깬다. 경하는 악몽이 지난



한강 작가

“5월 광주”에 이어 ‘제주 4:3’에도 한강의 문장을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는 영역이 있었다고 믿게 된다”고 평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연합뉴스

책에서 다른 학살에 대한 꿈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제주에 가 있는 친구 인선과 함께 꿈과 관련한 것을 영상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는데...

신형철 평론가는 “작가가 소재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강은 하게 만든다”며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